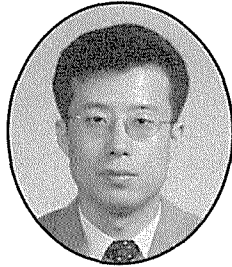


휘발유에 대한 소론



박진호
〈한국은행 조사역〉

1. 휘발유제품시장의 변화

휘발유 등 석유류 제품은 정부의 규제완화 및 세계화 진전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가격결정 체계가 고시제에서 연동제를 거쳐 1997년에 명목상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국내 정유사에게만 허용되었던 석유류 제품의 수입도 저장시설 및 비축 의무 이행시 수입을 제한하지 않는 등 많은 경쟁적 요소들이 국내 석유류 제품 시장에 도입되어 왔다.

또한 휘발유 공급유통 체계도 「정유사 → 대리점 → 주유소」유통형태에서 유통경로의 자율화를 위해 1998년 초부터는 정유사가 직접 주유소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동안 외국인 금지업종으로 묶여있던 주유업은 1998.5월, 정제업은 1998.10월부터 외국인에게도 개방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1.9월 복수 폴사인제(상표제)의 시행 등으로 향후 정유업체의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도 종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휘발유 가격의 변화는 물가안정 측면에서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휘발유가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와 휘발유 가격중 세금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휘발유가격의 문제점

1) 물가상승의 주요요인

휘발유의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즉 휘발유가격은 1991~1995년중 연평균 9.7% 올라 이 기간중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률 6.2%에 대하여 기여율이 3.1%였으며 1996~2000년 중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 및 국제유가의 강세 영향으로 연평균 16.5% 올라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률 4.0%중 기여율이 14.3%였다. 2001.1~8월중에 휘발유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5.9% 상승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 4.8%에 대하여 기여율이 4.7%를 보여 휘발유가격의 구성요인중 가장 큰 부분인 환율 및 국제유가의 최근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2) 석유류의 소비지출 비중 증가로 물가파급효과 확대

휘발유는 대체 재화로로의 전환에 따른 불편비용의 증가 및 소비의 관성 유지 등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제품이 기 때문에 휘발유의 가격상승은 소비자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로 연결되기 쉽다. 소득증가보다 휘발유가격이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경우 그만큼 소비자의 실질소득은 감소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소득감소에 비해 소비지출은 습관적 요인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쉽게 줄어들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임금의 상승압박 요인 또는 다른 부분의 지출감소에 따른 국내소비 부진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1998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이 10%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물가에는 0.27%p만큼의 상승압력이 있게 된다. 2000년중 도시근로자의 소비지출액 중에서 휘발유가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1995년에 비해 2배 증가함에 따라 2000년 기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가격 변동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도 1995년 기준에 비해 2000년 기준 소비자물가에서는 더욱 확대되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소비지출중 차연료비의 지출비중 변화

	1995(A)	1998	2000(B)	(B/A)
차연료비의 소비지출 비중(%)	2.1	4.4	4.2	2배
소비자물가에서 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중(가중치) ①	22.7		45.4 ^e ③	"
소비자물가에 대한 파급효과 ②	0.254p	0.270%p		1.1배

주 : 1) 천분비 기준

2) 각 년도의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석유류가격이 10% 상승하는 경우 파급효과

3) 석유류의 소비지출 비중 변화를 고려하여 산출(22.7×2배)

자료 :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

3) 물가 변동성 확대의 주요 요인

휘발유 가격의 변동성은 소비자물가 전체의 변동성에 비해 5.6배나 크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의 불안정 확대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의 변동성 확대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및 휘발유가격의 변동성(1991.1~2001.8월 중)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A)	휘발유가격(B)	(B/A)	휘발유 제외 소비자물가
평균	5.1	12.9	2.5배	4.9
표준편차	2.4	13.4	5.6배	2.3

주 : 전년동월대비

이러한 석유류 가격의 변동성은 근본적으로 석유류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은 국제유가 및 환율의 불안정성에 기인하지만 원유도입에 따른 환차손 반영, 원유도입가격의 국제가 연동 등 현행 원가보전방식도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한다. 국내 석유류가격이 자율화된 1997년 이후 휘발유의 공장도가격(세전가격)과 원유의 원화표시 수입물가의 상관관계는 휘발유가격이 평균 1개월 후행 시차일 때 가장 높으며 이때 상관계수는 0.75를 나타내었다. 세금조정, 환차손의 원가부담시기, 수입물가의 원유도입가격에 대한 선행성, 국내원유 수송 비용 등으로 인해 상관계수가 반드시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4) 높은 세금비중

주요국의 석유류 제품가격 및 세금비중 비교

(2001.5월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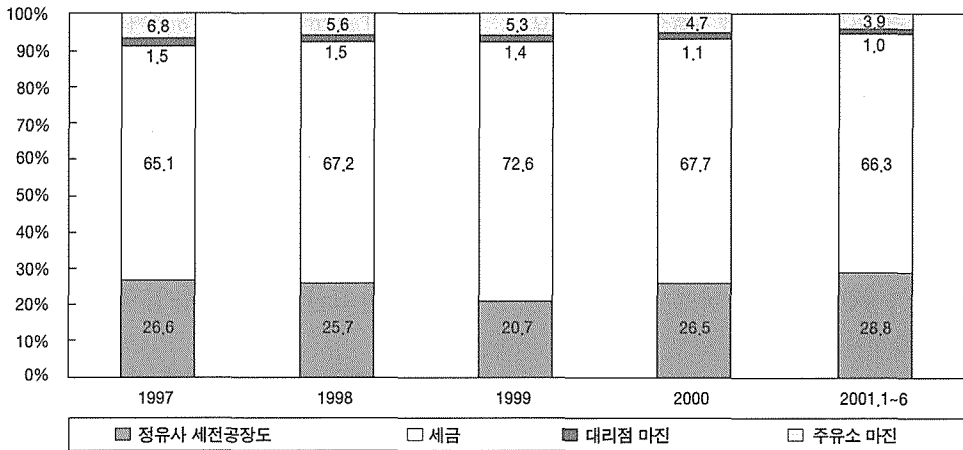
제품	국가	단위	제품가격	세금		세전	
휘발유	한국	₩/ℓ	1,248.2	858.13	(68.7)	390.07	(31.3)
	일본	¥/ℓ	108.2	59	(54.5)	49.2	(45.5)
	미국	\$/ℓ	0.47	0.1	(21.3)	0.37	(78.7)
	독일	DM/ℓ	2.26	1.47	(65.0)	0.79	(35.0)
	영국	£/ℓ	0.78	0.57	(73.1)	0.21	(26.9)
경유(자동차용 디젤)	한국	₩/ℓ	617.57	239.35	(38.8)	378.22	(61.2)
	일본	¥/ℓ	87.2	36.3	(41.6)	50.9	(58.4)
	미국	\$/ℓ	0.38	0.12	(31.6)	0.26	(68.4)
	독일	DM/ℓ	1.47	0.74	(50.3)	0.73	(49.7)
	영국	£/ℓ	0.66	0.46	(69.7)	0.2	(30.3)
등유(난방유)	한국	₩/ℓ	512.51	135.59	(26.5)	376.92	(73.5)
	일본	¥/ℓ	50.2	2.4	(4.8)	4.78	(95.2)
	미국	\$/ℓ	0.36	0.00	(0.0)	3.6	(100.0)
	독일	DM/ℓ	0.79	0.23	(29.1)	0.56	(70.9)
	영국	£/ℓ	0.20	0.04	(20.0)	0.16	(80.0)

주 : 1) ()내는 구성비 %

자료 : 한국석유공사

석유류 가격의 주요 구성요인으로는 크게 나누어 원유의 원화수입가격, 세금, 유통마진을 들 수 있는데 2001.5월 현재 휘발유의 소비자 판매가격중 세금비중이 68.7%로, 난방유(26.5%), 자동차용 디젤(38.8%)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일본(휘발유 세금비중 54.5%)이나 미국(21.3%)보다는 높은 편이나 영국(73.1%)에 비해서는 낮은 비중이다. 주요국과 비교해본 우리나라의 세금비중은 휘발유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유 및 등유는 외국과의 격차가 높지 않은데 이것은 정부의 석유류에 대한 조세정책이 휘발유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류 제품의 가격상승은 유통요인보다는 원유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뿐만 아니라 세금의 인상이 소비자가격 상승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휘발유의 소비자판매가격 구성요인 추이



주 : 무연보통휘발유기준

자료 : 한국석유공사

한편, 정부가 발표한 석유류 조세구조 개편계획(2000.9월)에 따르면 현재 유종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특별소비세(교통세 포함)를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휘발유 630원, 경유 421원, 등유 201원으로 할 것을 확정된 바 있다. 이것은 경유 및 등유의 특별소비세 인상을 의미하며 현재 외국과의 조세비율 격차가 적은 이들 석유류 제품도 외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앞의 내용들을 종합하자면 휘발유가격의 상승은 소비자의 지출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국내물가의 상승 작용과 불안정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높은 세금비중 및 석유류 제품간의 세금 비중 차이, 원유의 선물시장 활용, 환차손 발생 등과 같은 휘발유가격을 둘러싼 제문제들을 하루 속히 개선함으로써 휘발유시장도 종전의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이제는 소비자시장으로의 변화가 적극 필요하다 하겠다. ♣